

## 돼지 해를 맞으며...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12년만에 돌아오는 돼지해가 되었다. 매스컴들이 돼지의 역사, 돼지가 전통적으로 갖는 의미를 보도하고 있다.

돼지해를 맞이하여 양돈가족 여러분과 가정에 돼지꿈이 뜻하는 것처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새해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출발하는데, 그 중에도 WTO체제의 출범을 들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의 개방화, 국제화에서 새해부터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갖겠다고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변화는 시작되었다.

UR협상이 지난해 종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개방이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불공정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미 301조를 들어 제소하고 있어 소시지와 냉장쇠고기, 냉장돼지고기의 유통기간이 얼마나 연장될지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UR협상 당시에는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개방 압력은 이제부터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육가공협회의 수입쇠고기 판매 방식에서부터 세세한 국내유통 문제까지도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협상을 담당할 관계관들이 국익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협상에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월드컵 축구나 지난 번 아시아 올림픽 축구에서도 우리는 골키퍼가 판단 실수 내지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해서 골을 허용한 적이 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최후 수비인 골키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양 대회에서 증명되었다. 프로축구에서 일화 팀이 2회 우승한 것도 따지고 보면 소련에서 수입한 골키퍼의 역할이 지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해들어 대부분의 프로 축구팀이 골키퍼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얼마 안 가서 팀 이름만 우리 것이고, 선수는 대부분 외국인으로 우리나라 축구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것을 보고 즐길 날이 올 것으로 예측된다. 프로축구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때쯤이면 현재 대표팀 감독만 외국인이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감독, 코치 모두 수입하게 될 지도 모른다.

농구 대잔치가 열리는데 각 팀들이 심판만은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농구협회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심판 뿐이 아니고 감독, 선수 모두 수입할 날도 멀지 않다.

66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  
 한국인인가, 아니면 세계인인가? 우리는  
 한국인이면서 세계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본래  
 세계인이었는데 한국인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지 못하면 세계화는 경제적  
 노예화이고, 정치·문화의 식민지화를 재촉할 뿐이다.  
 개방화, 세계화, WTO 체제의 출범을 맞는 새해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99

국민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프로야구의 경우도 이제까지는 교포에 한해서 선수들 수입해 왔으나, 앞으로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MMA(최소시장 접근 방법) 방식으로 수입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MMA 방식은 쌀 및 돼지고기, 닭고기 등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만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인력 수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근로자 수입이 연수라는 명목으로 MMA 방식으로 지난 해부터 정식으로 수입개방이 되어 해마다 그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만, 미국같이 세계 각국의 인종 전시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뭐니뭐니해도 시급히 수입해야 할 부분은 양심적인 세무공무원과 노련한 국제협상 전문가의 수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아무런 수입계획이 없는 것을 보면 아직 공무원 수입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고 신도불이 논리가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세계화보다 자급 쪽으로 가는 모양이다.

최병렬 서울시장이 취임해서 앞으로 공사 감리는 외국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선언을 했는데, 세무직에 대한 감사 전문가의 수입계획은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하였는데, 가장 낙후된 분야는 정치라고 한다. 정치인도 MMA 방식으로 전국구의 일정 비율을 수입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재미, 재일 교포 중에서 수입된 바 있다. 최근 광고 모델이나 배우의 수입이 거액을 주고 시작되고 있다. 새해에는 이 분야도 수입량이 급팽창하리라고 예견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하는 말이 맞는 것인지 가치관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 한국인인가, 아니면 세계인인가? 우리는 한국인이면서 세계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본래 세계인이었는데 한국인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없는가?

이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지 못하면 세계화는 경제적 노예화이고, 정치·문화의 식민지화를 재촉할 뿐이다.

개방화, 세계화, WTO 체제의 출범을 맞는 새해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